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5. 21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무늬만 우수대부업…"은행 KPI에 대부업체 대출실적 반영"

서울경제 https://zrr.kr/WkB4oP

우수 대부 업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통로가 있지만 실제 차입 비중은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
대부 업체에 대한 대출 실적을 은행권의 서민금융공급 실적(KPI)에 반영하고 저신용자 기준도 재설정해 우수 대부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

"신용등급 없어도 우량기업 대출엔 위험가중치 낮추고 '포용 기여도' 중심 평가"

이데일리 https://zrr.kr/WmNuem

은행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식, 기업대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자본규제를 실제 위험을 반영해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
업력이 오래된 기업 주식이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투자적격을 판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RW)를 현행 비율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다는 것

코스피 머니무브에…은행권 다시 수신 경쟁

이데일리 https://zrr.kr/bofcgj

증시 강세로 시중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KB·하나·카뱅 등 은행권에서 다시 예금금리를 인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한동안 수신 경쟁을 자제해왔던 은행들이 코스피 상승에 따른 '머니무브' 확산과 확대된 예대금리차 부담 속에 고객 자금 방어에 나서는 모습

KB·신한·하나, 대기업 여신 늘었다…삼성전자에만 7조 공급

서울경제 https://zrr.kr/MBedMq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금융의 SK·현대차·삼성 등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1분기 여신 잔액은 114조 6593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3767억 원 늘어난 규모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 등 기업의 자금 수요가 커진 가운데 은행권도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금융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상한 폐지…가담 신고자도 받는다

연합뉴스 https://zrr.kr/Z2Ltyi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을 신고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폐지
가담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요건 충족 시 포상금을 일부 지급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

"코스피 조정 일단 피하자"… MMF로 이달 10조 뭉칫돈

파이낸셜뉴스 https://zrr.kr/plTeg3

머니마켓펀드(MMF) 잔고가 262조14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운 모습이며, 이달 들어서만 10조2766억원 급증한 수치
코스피 '1만피' 전망에도 증시가 출렁이자, 투자자들이 안전한 투자처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한 번에 50만원' 체외충격파, 1년 12번까지만 실손보험금

중앙일보 https://zrr.kr/fzdfzb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혀온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이 연간 12회까지만 적용될 전망
해당 기준을 넘어서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

도수치료 닮아가는 간병특약…보장한도 '반토막'

한국경제 https://zrr.kr/tNHLoA

국내 손해보험사의 지나친 판매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맞물리며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이 보험업계의 새 리스크로 부상
고령화로 간병비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들이 앞다퉈 보장 한도를 높인 데다 일부 가입자가 허위 간병이나 부당한 돌려받기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

일본,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 허용

이데일리 https://zrr.kr/uMmS5J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발행된 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을 자국 결제시스템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송금부터 토큰화 결제 시스템까지 새로운 결제 활용 사례를 열 수 있는 길

한화 9.84%로 두나무 전략주주 부상…카카오는 사실상 정리

블로터 https://zrr.kr/xrl2Cs

한화투자증권은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구주를 추가 취득으로 기존 5.94% 지분율을 9.84%까지 끌어올리며 두나무의 전략주주로 부상
두나무 주주구도는 카카오 계열의 투자 회수와 전통 금융권의 지분 확대라는 방향으로 재편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